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11월 21일(주일) 제1369호



사진은 지난해 임직예배.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

11월 27일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 오후 4시
명예권사 6명, 권사 218명, 안수집사 289명 임직

2021년 온누리교회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를 오는 11월 27일(토) 오후 4시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드린다. 이날 권사 224명(명예권사 6명, 권사 218명), 안수집사 289명(남 93명, 여 196명)이 임직된다.

임직 대상자들은 지난 9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된 '2021 임직자스쿨'을 수료했다. 임직자스쿨에서는 '교회론과 목회철학', '온누리교회 비전과 창의적 리더', '건강한 영성 건강한 리더', '일터영성', '안수집사·권사의 모델' 등을 주제로 훈련이 이어졌다. 개인영성훈련(성경통독, 새벽기도, 독서보고서, 큐

티)도 모두 이수했다.

임직 대상자들은 반드시 임직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지각이나 불참하면 임직을 받을 수 없다. 복장은 남자는 검정색 정장(흰색 셔츠), 여자는 검정색 바지정장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어야 한다. 임직회비는 따로 없다. 임직식에 올 때는 교회주차장과 주변 도로가 매우 혼잡하기 때문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다.

임혜정 성도(도곡공동체, 안수집사 임직 대상)는 "자격 없는 제가 귀한 직분을 받게 돼서 거룩한 부담이 있다"면서 "지금까지처럼 꾸준하고 변함없이 교회

와 사역을 섬기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했다. 강필선 집사(서초B공동체, 권사 임직 대상)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써주신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권사가 되겠다"라고 약속했다.

오는 12월 4일(토)에는 장로장립식이 열린다. 올해 장로 장립 대상자는 47명이다. 피택장로들은 지난 4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된 장로사관학교를 수료하고, 장로 고시를 통과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대학청년부 '2021 사랑애틀'을

불우이웃 및 차상위계층 지원

대학청년부 '2021 사랑애틀'이 시작된다. 올해는 12월 4일, 11일, 18일에 진행된다.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청년들이 서울 시내 주민센터, 복지관, 지역교회 등 13개 기관과 연계해서 불우이웃 및 차상위계층 1천 가구를 지원한다. 쌀과 반찬, 라면, 생필품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사랑애틀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실시한다. 대상자 가정에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생필품과 쌀, 반찬 등을 전달한다.

"엔젤트리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11월 20일부터 엔젤트리 사연 게시

온누리교회 성도들 앞으로 엔젤트리 사연이 도착했다.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 싶다는 사연 등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꼭 필요한 이웃들의 이야기다.

2021 엔젤트리 사연은 11월 20일 서빙고, 양재 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로비에 게시된다. 엔젤트리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뽑고, 엔젤폰으로 "000번 사연은 제가 섬기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문자로 전송되는 주소를 확인하

고 엔젤트리 사연에 알맞은 선물을 발송한 뒤에는 엔젤폰으로 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는 "엔젤트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도록 만들어주는 영성운동"이라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02-3215-3434, 3436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공동체 하반기 종강예배

11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공동체별로

온누리공동체가 2021 하반기 종강예배를 드린다. 오는 11월 23일(화) 수원온누리교회 서누리공동체를 시작으로 12월 5일(주일) 고양은평공동체까지 공동체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종강예배를 드린다(표 참조). 올해 온누리공동체는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힘차게 달렸다. 1월 4일~4월 3일 90일의 기적(새벽기도회, 성경일독), 생명의 나눔의 기적 캠페인, 2월 선교헌금 작성행사, 3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6월 마리아행진, 10월 리브소나타 야마가타 등을 진행했다.

서빙고			
날짜	공동체	장소	시간
11월 26일(금)	OCC	중	20:00
11월 26일(금)	가정사역	중	20:00
11월 26일(금)	강서	헬엑스	20:00
11월 26일(금)	동대문중앙	중	20:00
11월 26일(금)	서대문	중	20:00
11월 26일(금)	성동광진	중	20:00
11월 26일(금)	양천	중	20:00
11월 26일(금)	여의도	중	20:00
11월 26일(금)	용산	중	20:00
11월 26일(금)	천양사역	중	20:30
11월 26일(금)	한강	중	20:00
11월 28일(주일)	광명	중	18:00
11월 28일(주일)	동작	헬엑스	19:00
11월 30일(화)	서빙고	중	20:00
12월 1일(수)	이수	중	20:00
12월 2일(목)	노원	중	20:00
12월 2일(목)	영등포구로	중	20:00
12월 2일(목)	특별한 초대	중	20:30
12월 3일(금)	강촌	중	20:00
12월 3일(금)	관악금천	중	20:00
12월 3일(금)	김포	중	20:00
12월 3일(금)	마포	유튜브&헬엑스	20:00
12월 3일(금)	북누리	중	20:30
12월 3일(금)	성북	중	20:00
12월 3일(금)	이촌	중	20:00
12월 3일(금)	충정로	중	20:30
12월 5일(주일)	고양은평	유튜브 & 중	19:00
12월 5일(주일)	신용산	중	16:00
12월 5일(주일)	일산	중	17:00

양재			
날짜	공동체	장소	시간
11월 26일(금)	강남A	중	20:00
11월 26일(금)	강남D	유튜브	20:00
11월 26일(금)	경기A	중	20:00
11월 26일(금)	서초C	중	20:00
11월 26일(금)	송파B	중	20:00
11월 26일(금)	하모니	중	20:00
11월 28일(주일)	푸른누리	중	18:00
11월 30일(화)	강남B	중	20:00
11월 30일(화)	분당A	중	20:00
11월 30일(화)	서초A	중	20:00
12월 1일(수)	강남E	중	19:50
12월 1일(수)	서초D	중	20:00
12월 2일(목)	서초B	중	20:00
12월 3일(금)	강남C	중	20:00
12월 3일(금)	과천의왕	중	20:00
12월 3일(금)	도곡	중	20:00
12월 3일(금)	분당B	중	20:00
12월 3일(금)	송파A	중	20:00
12월 3일(금)	양재	중	20:00
12월 3일(금)	포인트5	중	20:30
방학없음	Bridge33+	-	-

캠퍼스			
날짜	공동체	장소	시간
11월 28일(주일)	부천 히라	본당	13:00
12월 4일(토)	부천 소망	본당	10:20
12월 5일(주일)	부천 사랑	본당	10:20
12월 5일(주일)	부천 믿음	본당	13:00
12월 5일(주일)	부천 화평	본당	14:00
11월 23일(화)	수원 서누리	본당	20:00
11월 24일(수)	수원 남누리	본당	20:00
11월 25일(목)	수원 북누리	본당	20:00
11월 26일(금)	수원 동누리	본당	20:00
12월 2일(목)	대전 동누리	본당	19:30
12월 3일(금)	대전 서누리	중	20:30
12월 3일(금)	대전 남누리	본당	19:30
12월 3일(금)	대전 북누리	세종교육관	19:30
12월 1일(수)	남양주 연합	본당	19:00
12월 3일(금)	평택 연합	중	20:00
11월 26일(금)	인천 미추홀	온라인	20:00
12월 1일(수)	인천 서누리	본당	20:00
12월 3일(금)	인천 동누리	본당	20:00
11월 26일(금)	강동 말씀	중	19:50
11월 26일(금)	강동 믿음	중	20:00
12월 3일(금)	양지 연합	본당	20:00
12월 5일(주일)	서산 연합	본당	11:30

특집_온누리회복축제 '팬데믹을 이기는 힘' 4-5면 기획_위드 코로나? 위드 지저스! 6면 CGNTV_특집 다큐멘터리 <미성유> 8면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 은혜와 감동을 기억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0월 27일(수)과 28일(목) 한국과 일본 야마가타에서 동시에 올려 퍼진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집회가 끝난 지 3주가 지났다. 야마가타 교계에는 아직도 러브소나타의 감동과 감사, 은혜가 진하게 남아 있다. 지난 11월 11일(목) 야마가타 실행위원회가 러브소나타 야마가타의 감사와 감격, 은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감사예배 및 감사회’를 개최했다. 야마가타 현지 실행위원회와 서울 러브소나타본부(온라인)가 참석했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실행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러브소나타의 은혜와 감동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서 “온누리교회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 편집자 주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실행위원장의 편지

세 가지 감사제목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집회가 끝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감사예배일 기준).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6월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1년 반이나 연기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집회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아낌없는 희생 덕분입니다. 이 지면을 빌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를 개최하면서 얻은 세 가지 감사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제목은 새로운 매체(온라인)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번 러브소나타 집회에는 총 738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까지 행해진 러브소나타 중에

서 가장 적은 참석인원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된 러브소나타 집회 시청자가 무려 12,721명(일본 2,868명, 한국 9,853명)이나 됩니다. 현장 참여자와 유튜브 채널 시청자를 합치면 13,459명입니다. 역대 러브소나타 행사 중에서 최다 인원입니다.

두 번째 감사제목은 일본에 있는 7개 온누리비전교회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러브소나타 집회 때마다 500명 가까운 한국인 봉사자들이 일본에 직접 왔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야마가타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 부족함을 메워야 했습니다. 야마가타 교회 대부분이 성도 수가 20명 전후인데 말입니다. 봉사자가 40명 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는데 강력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하



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온누리비전교회 목사님과 성도 80여 명이 야마가타에 와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습니다.

세 번째 감사제목은 이재훈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인 봉사자들도 일본에 입국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였지만 이재훈 목사님마저 현장에 설 수 없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우리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이재훈 목사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브소나타는 하용조 목사님이 시작하셨고, 지금은 이재훈 목사님이 그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적합한 러브소나타 설교

자는 이재훈 목사님입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하지 않으면 러브소나타가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온누리교회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원생중계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재훈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고, 풍성한 열매(83명 결신)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실행위원회는 후속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속 양육 프로그램과 ‘미니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같은 이벤트, 아웃리치도 계획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검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마가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온누리교회에 대한 감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 다카하시 목사(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실행위원장)

김하중 장로가 고백하는 두 가지 감동

한일관계 어둠을 비추는
한 줄기 빛 ‘러브소나타’

2007년 시작된 이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던 러브소나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다. 올해도 그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야마가타 현지 실행위원회의 러브소나타 개최 열망은 식지 않았다. 러브소나타 본부는 일본측 의견을 존중해서 집회를 열었다. 온라인을 이용한 이원생중계 형식이였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이었기에 난관이 많았다. 러브소나타 본부는 13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온라인(Zoom)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갔다. 한국에서 스태프들과 봉사자들이 갈 수 없었기에 일본 온누리비전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봉사자로 섬겼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막 오른 러브소나타 야마가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었다. 83명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 야마가타 실행위원들과 31개

협력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섬기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집회는 일본 교회에 두 가지 감동을 주었다. 첫 번째 감동은 팬데믹이라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일본 선교를 향한 온누리교회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감동은 한국에서 봉사자와 스태프들이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 온누리비전교회와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선교사들의 섬김이다.

일본 사회에서 교회와 크리스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회적인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일본 목회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도와줄 사람이나 기관도 거의 없다.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브소나타를 통한 온누리교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은 일본 목회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된

다. 나아가 그들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일본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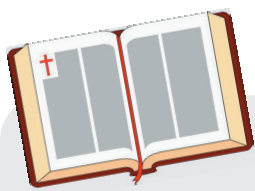
러브소나타 야마가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본 목회자들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을 결속과 연합을 통해서 해냄으로써 자신들도 결속하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야마가타 집회는 일본 교회 스스로 일본에 맞는 형식으로 러브소나타를 진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러브소나타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일본 목회자들과 교회의 결속이 강화되기를 원했던 하용조 목사님의 비전과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더욱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러브소나타 본부는 일본 교회들과 협력하면서 집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후속 프로그램을 세분화해서 일본 지역 교회의 영성과 양육에 힘을 쏟을 것이다. 연결된 일본 실행위원 목회자들과 협력교회들을 연결하고 연합하게 해서 일본 교회 스스로 일본 선교뿐만 아니라 열방 선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수교한 지 56년이 넘

었다. 그런데도 양국 관계가 진전되기는커녕 악화되었다. 지금은 역사상 최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답답하고 슬픈 일이다. EU 국가들은 회원국이 27개국에 달하고, 나라 간 역사적인 문제와 갈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들의 주장을 조금씩 내려놓고 양보하고 있다. 그들은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하고 접종하는 문제조차 회원국 국민의 편의를 위해 일시불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과 일본도 양국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정치적인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화해해야 한다. 우리는 양국 정부가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양국 관계가 얼어붙고 모든 방면에서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용감하게 일본 교회와 일본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러브소나타는 한일관계의 어둠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일본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가진다면 머지않아 양국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양국 국민이 번영과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한일관계 회복과 러브소나타의 귀한 사역에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 김하중 장로(전 주중대사)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율법의 종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갈라디아서 3:15~29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율법이 폐해졌습니다.”

죄인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써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무너뜨리고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이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더욱 확실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얻는 그 무엇인가를 더욱 확실하다고 느끼고 편안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실상을 깨닫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 계획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복음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죄인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영광스러운 분이 영광을 내려놓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이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 주시면 안 됩니다. 죄인인 인간이 죄 가운데 죽도록 처벌하시면 됩니다. 죄를 지은 자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며 되고, 의로운 이는 의를 지키면 되는데, 의로운 분이 불의한 이들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된다는 것은 불합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바보가 되고,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불합리한 희생을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많은 인물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인물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만나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과거 문서들을 후대 사람들이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들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의 모든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다면 껌데기밖에 남지 않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하

여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이외에도 율법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이들과 싸우면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인용합니다. 그들이 중요시하는 모세의 율법과 대조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보다 430년 전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습니다. 율법이 있지도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 약속과 율법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사용한 중요한 축입니다. 바울의 설명은 구약의 역사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율법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꾸짖을 때 언제나 율법을 인용합니다. 약속이 강조되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이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선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430년 전에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약속의 출발점이 율법의 출발점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따라서 이후 주어지는 모든 관계에서는 율법이 약속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약속을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 통로이자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율법이 쓰임 받은 것입니다.

율법, 약속된 자손이 오기까지만 유효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화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17절).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 백성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중심으로 삶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이해되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의 천사에게 받을 당시 그런 수준의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시대에 주어진 법들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국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율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느낄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

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율법의 목적을 봐야 하는데 율법에서 그들의 삶이 시작된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미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이들이 율법 앞에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빛나게 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빛나게 하는 배경입니다. 칠후같이 어두운 밤일수록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배경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19절).

‘약속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후대에 오해가 없도록, 신학적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단수로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된 후손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단수형으로 썼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기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율법의 기능을 폐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법은 그 원리가 이어지지만, 의식법, 제사법, 음식법 등 모든 법은 폐해졌습니다.

복음은 오직 믿음 율법은 오직 행위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22절).

여기서 성경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가두었다’는 것은 죄수를 감옥에 가둘 때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감옥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감옥에서 태어나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도 죄의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 ‘상관없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율법을 통해서 죄 아래 가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설 때 모든 사람이 죄인임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23절).

여기서 ‘매여, 갇혀 있다’는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포로가 되어서 감시받고 자유가 박탈되어 포로수용소에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 죄의 포로가 되어 사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죄의 빛진 자가 되어서 포로로 끌려다닙니다. 포로된 자는 자유를 갈망하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고, 죄에 매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자유를 갈망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24~25절).

‘선생’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선생이나 교사는 아이들이 지식과 교양을 쌓도록 인도하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이다고고스(παιδαγωγος)’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사와 선생의 기능이 아닙니다. 특수한 기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힘듭니다. 당시 파이다고고스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의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 등하곶꼴에 보호자나 인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잘못을 꾸짖고, 야단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그림들을 보면 파이다고고스가 아이 앞에서 매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아니라 종인데 자녀를 훈육하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의미의 교사와 선생을 말하는 단어는 ‘디다스칼로스(διδάσκαλος)’입니다. 파이다고고스는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훈육관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능입니다. 파이다고고스를 선생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그 기능을 준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기능을 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의 기능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14면에 계속〉

팬데믹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온누리회복축제 2,852명 참석(현장 1,093명, 온라인 1,759명)
(3일 합계)



△ 지난 17~19일 열린 2021 온누리회복축제 현장.
▽ 회복축제 강사들. 박성심 사모(미국 심리치료사), 최희현 박사(연세로템정신의학과의원), 박상미 소장(더공감마음학교), 박성덕 소장(연리지부부가족연구소), 오원웅 박사(마음공장심리코칭연구원),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과 정신적 아픔(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다. 마음과 정신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다. 2021 온누리회복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픔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장(場)이었다.

지난 11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온누리회복축제가 ‘팬데믹을 이기는 힘’을 주제로 막 올랐다.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 집회에는 성도 2,852명(3일합계/ 현장 1,093명, 온라인 1,759명)이 참석했다.

11월 17일 ‘마음의 치유’

집회 첫날부터 상처받은 마음을 인지하고 치유했다. 포문은 이재훈 담임목사의 오프닝 메시지가 열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구원이 곧 회복”이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으로 가는 여정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강의는 박성심 사모(미국 심리치료사, 결혼과가족 상담가)가 ‘네 안의 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를 주제로 했다. 박성심 사모는 “우리 안에 트라우마에 반응하는 고통받는 아이들(안간힘을 쓰는 아이, 울고 있는 아이, 공포에 얼어붙은 아이, 굴복하는 아이, 도

망가는 아이 등)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살려달라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아픔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를 예술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금가루를 뿌리시는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권면했다.

박상미 소장(더공감마음학교)은 ‘마음과 관계의 회복’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박 소장은 “크리스천들이 마음의 병(우울, 무기력, 불안, 트라우마, 강박)을 앓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도, 의지력이 약해서도,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도,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다”라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를 제안했다. 그 이유는 “고통의 터널을 먼저 건넌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치유자가 될 수 있고,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1월 18일 ‘정신의 치유’

온누리회복축제 둘째 날에는 ‘정신의 치유

’를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다. 박성덕 소장(연리지부부가족연구소)이 ‘거리 좁혀서 극복하라’를 주제로 강의했다. 박 소장은 “코로나19는 두려움과 경계심을 증가시키고, 갈등과 고립을 유발하며, 이로 인한 우울과 불안증세를 낳는 위기의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서로 강하게 결합할 때 비로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나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친한 친구이자 부모, 안식처이자 반석이며,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사랑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을 당부했다.

오원웅 박사(마음공장심리코칭연구원)는 ‘사랑의 비용을 지불하는 치유의 공동체’를 주제로 강의했다. 오 박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 간의 접촉을 꺼리고, 타인의 고통에 둔감해진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그들에게 손을 대서 고치셨는데 그 마음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기는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통 받는 사람을 보듬고, 지켜주고, 책임지고,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11월 19일 ‘관계의 회복’

온누리회복축제 셋째 날에는 ‘관계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됐다. 최희현 박사(연세로템정신의학과의원 원장)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과 관계회복’을 주제로 강의했다. 최 박사는 “모든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확실성의 영역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며 “상처 입은 마음과 관계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고백한다면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강의는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가 ‘진밀한 관계의 힘’을 주제로 했다. 이기원 목사는 “관계는 훈련이고, 관계훈련은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된다”면서 “주님과 함께, 공동체, 믿음의 지체, 교회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훈련을 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나가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윤정순 권사(서초B공동체)는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영적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나를 잘 보살피고, 다독여주고, 위로해주는 연습을 하면서 이 위기와 고통을 이겨내겠다”고 다짐했다. 김승진 집사(관악공동체)는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는 크리스천의 방법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임을 새삼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 정현주, 홍하영 기자

팬데믹, 이렇게 승리하겠습니다!

온누리회복축제에서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강의뿐만 아니라 소그룹 나눔도 이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감사 그리고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다. ‘관계’의 어려움이 큰 것 같다.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머물러야 하는 아이들과의 관계,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응대하느라 힘들고 경제적 손실을 매꾸느라 지칠 대로 지친 남편과의 관계도 어렵다. 단조롭고 반복되는 주부의 일상을 살면서 무기력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교회 사역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생기는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고 대처하기도 쉽지 않았다. 새로운 기술(영상 촬영 및 편집, 줌(Zoom) 사용법, PPT 활용, 유튜브 운영, 영상 송출 프로그램 등)을 배우는 것도 힘들었다. 새로운 도구를 다루면서 생기는 미숙함, 두려움, 실수하지 않으려는 긴장감과 스트레스도 굉장

했다. 사역과 가정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감내해야 했다. 이 어려움은 현재진행형이다. 온라인으로 사역을 하면서 소통의 어려움도 많이 느끼고 있다. 갈등과 오해가 생겨도 온라인에서는 함께 인아주고, 격려하고, 식사교제 하면서 오해를 풀 수 없기 때문이다.

역설적인 상황도 있다. 외출하면서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되어서 코로나19 이전보다 도리어 많은 관계 속으로 들어갔던 것 같다. 평일 저녁 외출이 부담스러워서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던 양육과정(OBC)을 수강했고, 온라인(Zoom) 큐티방과 성경통독 소그룹 모임도 지속했다. 이 힘든 시기 가장 큰 도움은 ‘관계기술훈련학교’에서 들은 강의였다. 관계기술훈

련학교 과정을 일상에서 훈련한 것이 주효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힘든 일상과 상황을 이기는 도구였다.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믿고 확인하는 하루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온누리회복축제에서 전문강사들이 애타는 심정으로, 때로는 울먹이며 강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다. 나는 다소 예민한 편이다. 내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눌 때 눈물 흘릴 때가 많다. 그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곤 했다. 그러나 강사님들의 말씀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는 상처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만이 아니라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다.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고 공감해주는 조력자이자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는 경험을 하고, 좋은 치료를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약함과 상처를 드러내고, 회복하는 과정을 멈추지 말아야겠다.

우울과 무기력으로 몹시 힘들었던 적이 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

로 몸부림쳤는지 모른다. 그때마다 나를 회복시켜준 힘이 ‘함께’였다. 때로는 엄마같이, 때로는 언니같이 나와 함께해 준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이번 온누리회복축제에서 나는 소그룹 조장으로 섬겼다. 우리 조에는 어린 자녀를 둔 엄마가 5명이 있었다. 아이가 장염에 걸려 현장에 올 수 없는 엄마, 어린 자녀와 함께 화면에서 인사하는 엄마, 아이 낮잠 시간에 참여하는 엄마 등 각자의 사연을 들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온누리회복축제에 참여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위로하고,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공감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들과 함께하며 살아갈 힘을 주고 싶다. 앞으로도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마다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머무르는 기술을 적용할 것이다.



이윤희 성도
(경기A공동체, 관계기술훈련학교 트랙3)

한결같은 하나님 사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 시작되고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몇 달이면 나아지겠지 생각했던 기대가 좌절로 바뀌었다. 진행하려 했던 일들과 사역의 길이 막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답답함과 좌절감을 느꼈다. 지난해부터 재정적인 어려움이 연거푸 찾아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우울감이 깊어졌고,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는 말을 남편과 나누는 날이 많아졌다. 하늘을 보고 농담처럼 “오늘 주님 오시기에 딱 좋은 날인데”라고 말하면서 웃어보려 애썼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힘들 때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거나 쇼핑과 운동 등 취미생활을 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서 관심을 외

부로 돌릴만한 에너지마저 잃어버렸다. 공황장애 증세까지 나타났다. 상담 치료와 주변 사람들의 기도, 도움으로 조금씩 나아졌다.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임마누엘 일기다. 매일 임마누엘 일기를 쓰면서 남편과 교제했다.

관계기술훈련과 임마누엘 일기 쓰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전부터 집중적으로 훈련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방주사를 맞혀 주신 것 같다. 트라우마를 깨닫고, 그 아픔을 직면하는 방법도 배웠다. 무엇보다 긴 터널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번 온누리회복축제는 관계기술학교의 연장선이었다. 첫날 강의부터 강한 울림이 있었

다. 박성심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서 나를 채찍질하고 있던 아이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나는 왜 쉬지 못하고, 어떤 잘못도 용납하지 못했는지 선명하게 알 수 있었다. 상처를 한 가득 안고 있는 자라지 못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한다. 주님과 함께 그 아이와 함께 머무르면서 그 아이의 집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작업을 할 것이다.

박상미 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수고했다”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눈물이 왁살 터졌다.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내게 사람들이 “왜 그것밖에 못하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거냐”며 비난했었다. 사실은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용납해줄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시면서 나를 용납하시고, 인정해주시니까 일어났던 마음이 눈 녹듯 풀려졌다. 이 경험을 남편과 나누고 싶었다. 남편에게 “숨 쉬고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고

마워”라고 했다. 남편도 이해를 받아서 그런지 마음이 풀어지는 듯했다.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해왔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하고 속상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일하니까 너는 쉬라”고 말씀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친정아버지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

또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칠지 모른다. 그러나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홍현정 성도
(강남D공동체, 관계기술훈련학교 트랙1)

《온누리교회 회복사역 소개》

□ 금요회복예배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20분
-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유튜브 중계)

□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서빙고
- 매주 주일 오전 11시 20분
- 서빙고 선교관 101호 및 온라인(Zoom)

양재

- 매주 주일 오전 11시 30분
- 양재 트리니티 304호 및 온라인(Zoom)

□ 월요어노인팅집회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 서빙고 비전홀

□ 내적치유학교

-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성경 말씀과 기도로 치유하고 회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학교

- 62기 내적치유학교(Zoom): 12월 10일~11일 / 12월 17일~18일 오후 3시~9시

□ 프리덤스쿨

- “나는 누구인가?” 각 개인의 부르심과 삶의 목적(Original Design)을 이해하고 진정한 정체성과 참된 자유를 찾는 여정의 과정
- 매년 4월, 10월(10주 일정)

□ 관계기술훈련학교

-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관계와 감정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온유한 보호자가 되는 기술들을 훈련하는 학교
- 매년 4월, 10월(8주 일정)

□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훈련 EHS

-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영성의 비밀, 정서적 건강과 영적인 성숙을 통합하여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와 진정한 삶의 변화 누리기
- 매년 3월, 10월 개강(8주 일정)

□ 어린이 부모 성장학교 하트스쿨

- 자녀의 정체성 회복과 부모자녀 간의 관계회복을 위해 미술, 음악, 놀이 등 예술과 예배를 통한 어린이의 회복과 전문강의를 통해 건강한 부모 역할을 돕는 학교
- 대상: 초등학교 1~6학년 및 부모
- 매년 4월, 9월(8주 일정)

□ 청소년 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

- 청소년들을 건강한 자아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고 부모와 자녀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우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돕는 학교
- 대상: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및 부모
- 매년 6월, 10월(아웃리치 있음)

□ 치유와 기쁨부음스쿨

-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원하는 사람, 치유의 은혜를 나눠주기 원하는 사람, 성령의 기쁨부음을 사모하는 사람을 위한 학교
- 매년 4월, 10월 개강

□ 회복소그룹

- 6~10명 내외의 참여자들이 비밀유지가 보장된 안전한 공간에서 각자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며, 그 삶을 성경적으로 조명하며 변화와 성숙을 도모하는 모임
- 일장: 매년 4월, 10월

□ 상담센터

-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심리적, 관계적, 영적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기독교 전문 상담가들이 성경적 관점과 전문성을 통해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센터
- 상담방법: 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미술치료
- 운영시간: 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 서빙고 02-793-2997~8
양재 02-570-7536~7
*사전예약 필수

□ 회복사역 문의: 02-3215-3532

위드 코로나? 위드 지저스!

위드 코로나 시대 ‘진짜 함께 해야 할 것들’

지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시작됐다. 앞으로 우리는 좋은 삶든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와 일상을 함께해야 한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가 가져온 문제들을 돌아보았다. 또한 우리가 일상 외에 진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코로나19가 아니라 진짜 함께해야 할 대상이 누구지도 고민해보았다. 그 고민에 대한 답은 단 하나였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일상을 회복하고, 기쁨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위드 지저스(With Jesus)’ 시대를 살아야 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1년 11월 1일, 대한민국이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선언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꼬박 671일째였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 사태를 예방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뜻한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에 대한 인식과 방역체계를 바꿔서 코로나19와 공존한다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 11월 1일 사당동 먹자골목에는 월요일인데도 사람들이 붐볐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조용하던 거리가 왁자지껄했다. 밤 10시만 되면 하나둘 꺼지던 간판이 자정이 다 되도록 반짝였다. 동네 맛집 앞에는 사람들이 다시 줄을 서기 시작했고, 영화관과 공연장 좌석은 빠르게 매진됐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교회 모습도 달라졌다. 99명으로 제한되던 예배당 예배 인원이 전체 수용 인원의 50%까지 확대되었다. 함께 모여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다. 오랜만에 만난 공동체 식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었다. 2년 가까이 들을 수 없었던 차세대들의 웃음소리도 들렸다.

그러나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기 전 일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사람들의 웃는 얼굴 위에 마스크가 쓰여 있다. 교회, 식당, 영화관, 마트 등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QR코드 인증도 꼭 해야 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는 ‘백신패스(접종 증명서·코로나19 음성 확인증)’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와 불안한 동행을 이어가면서 2년여 시간을 돌아봤다. 그랬더니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하는 것, 진짜 함께해야 할 것, 진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보였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위드 코로나가 아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위드 지저스(With Jesus)’다.

코로나19, 악자부터 집어삼켰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 거리를 두고 지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앉아야 했고,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지 못했다. 명절에도 가족이 모이기 어려웠다. 약속을 주고받는 일상조차 피해야 했다. 몸이 멀어진 만큼 마음의 거리도 멀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웃을 돌보는 일이 소홀해졌다. 그 사이 코로나19는 악자부터 집어삼켰다.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들과 노인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부터 강화되었다. 휴교령이 내려지고, 노인복지시설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몇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왔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에서 아동과 보호자(만 4세~고등학교 3학년) 8천 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하루 한 끼 이상 결식 경험이 있는 아동은 61.6%로 나타났다. 아동 10명 중 6명은 결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들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학대도 급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사범으로 입건된 이들은 8,801명이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사범은 이미 5,572명이다. 올해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분석된다.

노인학대 문제도 만만치 않다. 보건복지부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노인학대 전체 사례가 1만6,973건으로 전년(1만6,071건) 대비 약 5.6% 증가했다. 노인복지시설 폐쇄로 인해 노인들이 겪는 사회적 단절 문제도 심각하다. 아동과 노인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장애인,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스스로 돌보는 일도 더욱 어려워졌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블루(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에 대한 불안과 무거운 사회 분위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겪는 우울감 또는 불안감)가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전국 만 20~65세 이하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상태’ 자료에 따르면 국민 40.7%가 코로나19로 우울과 불안을 경험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우울을 넘어서 화가 난다는 의미의 ‘코로나 레드’, 좌절, 절망, 암담함을 느끼는 ‘코로나 블랙’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울증 등 주요 정신과 질환 진료를 받은 사람이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는 2019년 79만8,787명에서 지난해 83만1,721명으로 4.1%나 늘었다. 수면장애(불면증)로 진료받은 사람 3.2%, 공황장애로 진료받은 환자 6.7% 증가했다.

코로나19는 교회에도 여러 문제를 가져왔다. 교회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예배다. 주일예배를 포함한 모든 주중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모이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던 성도들도 어느새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다. 지난 8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이 통합총회 소속 성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한국 교회 성도 10명 중 7명이 “굳이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했다. 전체 성도 중에서 27.8%만이 “주일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영적 침체를 호소하는 성도들도 많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전국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신앙의 질적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도 30%가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고 응답했다.

위드 지저스 시대와 크리스천

코로나19가 가져온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이미 그 답이 정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면 된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으로 우리도 함께 움직이면 된다. 바로 그것이 ‘위드 지저스’ 시대를 사는 방법이다.

예수님은 늘 약자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동안 소

홀했던 이웃 돌보는 일에 마음과 힘을 썼으면 좋겠다. 사실 온누리교회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이웃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다. 사회선교부 이웃사랑팀은 코로나19로 끼니 해결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위해 도시락배달을 했다. 지난해에는 공감소비운동을 벌여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도움을 줬다. 코로나19로 인한 혈액보유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명나눔의 기적에도 동참했다. 지금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성탄절을 선물하는 엔젤트리가 한창이다.

예수님의 눈길은 내 마음에 머무신다. 애절한 내 마음에 예수님의 위로가 닿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 성경에 우울증이라는 임상 용어가 쓰여 있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증상을 겪는 모습이 여러 번 나온다. 욕이나 모세, 요나와 베드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우울증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과 우울한 현상을 예레미야애가에 기록했다. 시편 69편과 88편, 102편의 시인은 우울증적인 현상을 절망의 노래로 언급했다. 그들은 우울한 현실을 신앙의 지혜로 돌파하고, 신앙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발견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좌절하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예배의 자리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위드 지저스 시대 크리스천들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왜 중요한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등 예배 본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크리스천의 정신건강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이정환 목사
(도곡공동체, <내 마음이 아픕니다>, <연약함이 건네는 위로> 저자)

A 권사님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잘살고 있지만, 오래전 만난 남자친구와의 일이 아직도 마음에 응어리로 남아있다. 죄의식에 시달리고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B 장로님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학대받고 자랐다. 날마다 폭언과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지옥 같은 집을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고, 가장 합법적으로 탈출하는 방법은 좋은 대학에 가는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죽을 각오로 공부해서 명문대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않았다.

C 형제의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엄마를 때리고 살림을 부렸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아버지의 주먹질과 발길질을 막아냈다. C 형제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다. 무능력한 어머니가 폭력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문제행동이 더욱 심해졌다고 생각했다. C 형제는 이를 갈았다. ‘실력을 기르자, 아버지에게 당한 빚을 갚아주자’는 원망이 오기로 바뀌어서 매사에 최고가 아니면 안 되었다. 바라던 언론사에 입사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가 문제였다. C 형제의 태도가 돌변했다. 아버지에게는 공격적인 아들이, 어머니에게는 불평만 하는 아들이 되어버렸다.

지긋지긋한 과거의 상처 이렇게 하면 벗을 수 있다!

따지고 보면 ‘과거’라는 것은 그리 대단하지는 않다. 이 순간도 1초만 지나면 과거가 된다. 상처를 받았든 영광을 누렸든 다 지나간 일이다. 순간이 쌓여 과거가 되고, 과거가 쌓여 오늘의 내가 된다. 그런데 과거를 지나간 일로 넘기지 않고 계속 안고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오랫동안 그것이 인생의 걸림돌로 남아 시시때때로 우리를 괴롭힌다. ‘나는 안 돼, 이제 다 끝이야’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서 쉽게 무기력해진다. 자존감만 낮아진 채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사람들은 ‘과거쯤이야 그냥 묻고 살자’고 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음 과정을 통해서 지긋지긋한 과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

첫째, 충분히 슬퍼하라. 한 번 받은 상처는 시



충분히 슬퍼하고, 상처준 사람 용서하고, 과거를 재해석하고, 하나님께 집착하라!

간이 흐른다고 자연스럽게 치유되지 않는다. 문으려 하면 할수록 더욱 또렷해진다. 물에 흠뻑 젖은 수건을 빨리 말리려면 물기를 충분히 짜줘야 한다. 마찬가지로 상처에서 정말 회복되고 싶다면 충분히 슬퍼하고, 아파해야 한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둘째, 상처준 사람 용서하라. 과거가 아픈 이유는 현상보다 관계에 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를 풀지 않으면 과거의 상처는 해결되지 않는다. 대상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다. 조용히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보자.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떠올리며 한 사람, 한 사람 용서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도저히 혼자만의 시간에서 용서가 안 된다면 상대방을 찾아가 화해를 청하자. 그 래야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셋째, 과거를 재해석하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대략 640km다. 자동차로 8시간, 도보로 걸면 3개월 정도 걸린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짧은 거리를 가는데 무려 40년이 걸렸다. 고통과 아픔이었지만 돌아보니 은혜의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나만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수혜자였음을 알게 될 때가 있다. 모든 과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배어 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된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재해석할 수는 있다. 그러면 끔찍했던 시간도 이해되고 치유가 될 것이다.

요셉의 형들이 어린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다. 요셉은 여러 역경을 겪으면서 마침내 애굽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죄로 두려움에 떠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창 50:20).

믿음으로 과거를 보고,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요셉은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넷째, 과거가 아닌 하나님께 집착하라. 과거에 집착하면 상처만 남지만, 하나님께 집착하면 즐거움이 온다. 성도님들 중에는 감당하기 힘든 과거를 간직한 사람들이 많다. 평생 남편에게 맞고 산 사람,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자녀를 둔 사람,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사람,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 과거에 깊게 베인 사람들이 응급실 찾는 심정으로 예배에 찾아온다. 그들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확신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할 때 과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내가 겪은 과거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과거 때문에 아파하지 말자.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상처는 아프지만 분명 극복해야 할 대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불완전한 세상에서 쉽게 넘어지고 상처받는다. 특히 가

정에서 받은 상처는 평생 간다. 똑같은 수모를 당해도 가해자가 가족이면 그 충격이 훨씬 크다. 그 부작용으로 어려서 싫어했던 부모의 모습을 닮기도 한다.

상처는 아프지만 분명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사무엘상에는 상처받은 한나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이 나온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지만, 둘째 부인 브닌나에게 극심한 괴롭힘을 당했다. 아이가 안 생기는 것도 원통한데 둘째 부인까지 자신을 업신여기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수모도 그런 수모가 없었다. 한나는 이 상처를 기도로 극복했다. 무엇이 문제인지, 왜 괴로운지를 하나님께 자세히 고했다.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수치스럽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나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내가 당한 아픔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한나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고통이 심하면 보이던 하나님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처럼 대처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하나님, 내가 당한 상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줄 믿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아픔이라도 단번에 치유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직접 복수의 칼을 갈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자. 나를 소진시키는 복수의 마음은 전부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 앞에 자기 상처를 모두 내어놓기를 바란다. 하나님께 상처를 들고 나가면 상처가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가장 연약한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도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나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상처준 사람, 나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무 미워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사람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더이상 상처에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자유함을 맛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조금만 더 귀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괜찮아, 넌 잘 하고 있어.”

CGNTV가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선교사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십시오”

코로나19 순직 선교사와 유가족을 위한 다큐 〈미씽유〉

선교 현장에서 만났고, 선교를 위해 부부가 됐다. 코로나19가 이 부부를 잠시 갈라놓았지만, 아내는 남편을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며 또 다시 선교지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공숙자 선교사와故 수라지 방게라 목사의 가슴 시린 이야기다. CGNTV가 또 한 번의 감동을 선물하고 있다. 정기후원의 달 특집 다큐멘터리 〈미씽유〉를 제작해서 방영했다. 〈미씽유〉는 코로나19로 순직한 선교사와 유가족들의 이야기다. 공숙자 선교사와故 수라지 방게라 목사의 이야기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공숙자 선교사는 “코로나19 순직 선교사와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준 CGNTV에 무한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또 “일면식도 없는 선교사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섬겨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끝까지 관심 가져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총 확진자 3,440만 명, 사망자 46만 4천 명.

코로나19가 인도에 남긴 상처다. 그 상처는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인도 국민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故 수라지 방게라 목사는 이 처참한 현장에서 성도와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자기가 코로나19에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과 염려보다 성도들과 이웃들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가 섬기는 빈민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 부부는 인도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봉쇄령이 내려졌을 때 지자체로부터 통행권을 받아서 빈민촌에 식량을 보급했습니다.”

목숨 걸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과 똑같았다. 그런데 빈민촌에 식량과 구호품을 보급하던故 수라지 방게라 목사와 청년들은 해맑게 그지없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돌보는 일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처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잠시 들어오라는 선교본부의 만류에도故 수라지 방게라 목사는 날마다 이웃들을 찾아갔다.故 수라지 방게라 목사는 청년들과 함께 2천여 명분의 식량과 7천여 명분의 구호품을 전달했다. 말쑥하고 기도가 필요한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다. 그날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코로나19 확산과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까지 이겨냈던故 수라지 방게라 목사는 한국행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1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4주 동안 사투 끝에 6월 30일 하나님 품에 안겼다.

“일찍부터 선교본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인이 인도를 두고 떠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인도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회자가족이 성도들을 두고 떠나면 그들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일 년 반을 인도에서 보냈는데 선교비를 받아 쓰는 카드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한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행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뿔뿔



온누리교회와 CGNTV를 통해 위로받고 다시 선교지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공숙자 선교사.

이 흩어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힘겹게 회복했는데 우리 남편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선교하며 만났고, 부부 선교사가 됐다

“남편은 참 청렴한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수라지 방게라 목사는 10전을 주면 버스비 8전을 쓰고 2전을 돌려주는 청렴한 동역자였다. 1994년 6월 공숙자 선교사가 동료 선교사의 단기 아웃리치를 돕다가 통역자로 온 청년 수라지 방게라를 만났다. 그게 첫 만남이었다.

“한국에서 의료 선교를 오는데 동료 선교사님이 일이 생겨서 제가 선교팀을 맞이했습니다. 통역자 두 명만 붙여 달라고 했더니 사역자 한 명과 사역자의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청년 수라지 방게라였습니다. 그때 의료 사역을 마치고 어느 슬럼가에서 동네 아이들 50명을 모아 놓고 사역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는 가정에서 이뤘고 든든한 동역자입니다.”

그 후 1년 6개월을 함께 사역했다. 그때만 해도 공숙자 선교사는 수라지 방게라에게 연애 감정이 눈곱만큼도 없었다. 1997년 비자에 문제가 생겨 공숙자 선교사가 인도를 떠나야 할 처지가 됐는데 그때 둘 사이에 변화가 생겼다.

“제가 인도를 떠나야 하니까 수라지 방게라 형제를 후임자로 생각하고 사역 인수인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수라지 방게라 형제가 가정 일을 이루면 좋겠다는 생각에 종매까지 썼는데 저랑 결혼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희 엄마가 철수를 도와주려 인도에 와계셨었는데 한 집사님이 저희 엄마에게 수라지 방게라 형제를 두고 기도해보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기도를 해보고는 괜찮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저에게도 기도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괜찮다는 응답을 받은 공숙자 선교사는 수라지 방게라 형제에게 기도해볼 것을 권면했다. 며칠 뒤 수라지 방게라 형제도 승낙했다. 그다음 일은 일사천리였다. 인도에서 약혼식을 하고 2주 만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감리교의 파송을 받고 다시 인도로 돌아와 사역했다. 공숙자 선교사 부부는 인도 빈민들을 섬기는 ‘마히마교회’와 크리스천 학교 ‘마히마 국제 크리스천 스쿨’을 세우고 섬겨왔다.

‘마히마교회’와 ‘마히마 국제 크리스천 스쿨’

기자가 공숙자 선교사를 만나러 갔을 때 인도 마히마교회 주일예배가 한창이었다. 공숙자 선교사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마히마교회 주일예배에서는 피터 형제가 설교하고 있었고, 양아들 조니가 통역을 하고 있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담임목회자를 코로나19로 하나님 품으로 보낸 교회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열정적이고 뜨거운 예배였다. 공숙자 선교사와 딸 수지 자매는 마히마교회 예배가 그리워서 하루빨리 인도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차세대 예배에 적용할 주일학교 교재와 프로그램 연수가 끝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제 눈에는 조니와 수지, 교회 성도들이 마냥 아이 같았는데 이제는 다 컸습니다. 자라는 환경이 사역지고, 선교지여서 그런지 저희 아이들과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로 준비된 것 같습니다. 남편이 소천하고 제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3주 동안 번갈아 가며 음식을 해오셨습니다. 그 음식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참 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故 수라지 방게라 목사와 공숙자 선교사는 인도 크리스천 학교 ‘마히마 국제 크리스천 스쿨’을 인도 전역에 세우는 비전이 있었다. 그 비전을 양아들 조니 형제와 딸 수지 자매, 마히마교회 성도들이 이어받았다.

공숙자 선교사는 자신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라면서 더 위험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감사해야지’라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슬픔을 견디고 있습니다. 뜻밖의 위로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와 CGNTV는 저희 부부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비롯한 코로나19로 순직한 선교사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정말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정말 많이 힘듭니다. 저희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선교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신 것처럼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후원도 계속해 주십시오. 그 기도와 섬김이 선교사들이 살 수 있는 울타리입니다.”

시청방법: CGNTV 정기후원의 달 특집 다큐 〈미씽유〉는 CGNTV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문의: 02-796-2243

“라떼는 말이야”

신앙생활을 최우선순위로!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과 관심사가 무엇일까? 나는 대학청년부 멘토로서,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로서 청년들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들의 고민과 기도제목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청년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진로 문제와 미래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다. 세상에서의 안정적인 삶도 청년들의 주요 고민거리이다.

이 시대 청년들의 삶의 자리는 척박하기만 하다. 입시지옥, 기약 없는 취업 준비와 구직 전쟁, 불안정한 일자리 등 삶의 무한 경쟁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지쳐가고 있다. 각종 언론 기사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벼랑 끝 대학생들’, ‘그들에게 봄은 없다’, ‘삼포세대’라고 칭하기까지 한다.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패배감과 불안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청년들의 고단한 삶이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금의 청년들은 너무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야 하니까 그들은 학교 시험과 취업, 먹고 마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스펙을 쌓아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다. 신앙생활을 최우선순위로 하라고 말이다.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충만함과 평강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편 23:1).

이 고백이 그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도한다. 나는 대학부 출신 성도들이 대학생 시절 아름다웠던 믿음 생활과 추억을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그런 대학 생활을 못 해봐서 너무 부러웠다. 다행히 늦게나마 멘토로서 대학부

교사 부부를 보면서 이 아름다운 비전과 믿음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대학청년부에 계속 열매 맺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기도한다.

세상에는 ‘불만족’이 넘쳐난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

따라가는 삶이 복되다. 진리의 말씀을 품고 세상의 가치와 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주 안에서 참된 부요함과 진정한 성공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대학청년부 멘토로서 그들의 고민과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 소통할 수 있는 마음과 소양을 가졌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부족했음을 많이 느낀다. 청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 눈물, 고통을 정말 이해하며 공감함으로써 위로와 격려하는 멘토가 되는 것, 대학청년부 영혼들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대학부로 부르신 사명임을 새삼 깨닫는다.



김영환 멘토
(하늘대학부 멘토)

*‘라떼는 말이야’는 청년들의 삶과 신앙적인 고민에 대해 대학청년부 멘토들이 자신의 삶과 경험에 비추어 조언과 위로를 건네주는 코너이다. 고민이나 질문 보내실 곳: joo@on누리.org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의 대화 단절 해결하기!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된 부부가 있다. 놀랍게 이 부부는 최근에 거의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떻게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지내는지 궁금해졌다. 그런데 그 부부가 싸움이 없는 이유를 듣고 대단히 안타까웠다. 신혼 초에는 부부가 의견이 충돌해서 자주 싸웠다고 한다. 그런데 싸움이 거듭되고, 감정의 양극이 쌓이고, 긍정적인 해결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부부 사이에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서로 답을 쌓고 회피하고 말을 하지 않게 되면서 싸움도 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이유였다. 누구나 동감하겠지만 서로 대화가 없어서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부부가 건강한 혹은 행복한 부부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차라리 대화하고 부부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더 나은 모습일 수도 있다.

부부는 왜 말을 하지 않게 될까? 서서히 미끄러지듯이 대화 단절로 향한다. 서로 기대와 좌절, 수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 경험이 쌓이면서 대화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 소통을 통한 해결의 긍정적인 경험 결핍으로 인해서 서로 답을 세워 간다. 대화의 양이 부족하다 해도 해결의 경험, 감정적 해소의 경험을 자주

하면 결코 단절된 대화의 형태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을 하지 않고 대화가 없는 부부는 서로에게 어떤 감정이 있을까? 상대방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자책 등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결혼 전 자신이 꿈꾸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이 될 것이고, 일정 부분 배우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깊은 내면의 감정을 만나보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라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한다.

부부 대화가 단절된 가정 중에 겨우 열려 있는 소통의 창구가 아빠와 자녀, 엄마와 자녀인 경우가 있다. 부부는 개별적으로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곤 한다. 부부 사이에 대화는 없지만 자녀와는 시간을 갖는다. 때로 자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의식적, 무의식적 시도와 노력을 한다. 물론 부부의 긴장감 가운데 자녀는 정서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힘들 수 있다. 부모의 눈치를 살피는 아이가 되기도 하고, 부모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때로는 관계가 악화한 부모를 각각 위로해야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부모가 가진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경청해야 하는 괴로운 경청자의 역할까지 할 때도 있다.

부부가 해결하고 끌고 가야 할 부부 관계에 자녀까지 끌어들이는 모양이 되는 것이다.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떤 이유에서든 대화가 끊어져 서로 싸움마져 없는 폭풍 전 적막함의 분위기에서 살아가는 부부라면, 우선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소소한 것이라도 좋다.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된다. 장을 보거나 자녀와 외식을 하는 등 함께 하는 활동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부부 관계 회복에 가장 좋은 것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동안 서로에게 쌓여 있던 서운함과 기대, 자책 등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서로 단절된 동안 내면에 쌓아두었던 무수한 추측들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대화가 오래도록 단절된 부부의 특징 중 하나는 서로가 상대방을 향해 웃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망과 무심함이 가득 차 있고, 서로를 향해서 미소 짓지 않는다. 어쩌면 먼저 손을 내밀고 미소와 따뜻함을 보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일 수도 있다. 살아오면서 쌓였던 갈등과 오해가 너무 많아서 먼저 손 내밀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부부는 하나님께서 서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섬기며 살아가라고 맺어주신 특별한 관계이다. 서로가 이 믿음을 잃

지 않고 먼저 웃어줄 수 있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껏 하지 못했던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는 말을 건네보자. 먼저 용서를 구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이미 관계가 많이 틀어져서 부부끼리 이런 시도를 하기 어렵다면 크리스천 부부 상담사를 찾아서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다. 가정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한다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 상담이 부담되면 가정사역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도 좋다. 다른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변화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무엇이든 가정의 위해 작은 용기를 내보자. 함몰되어 있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를 위한 작은 시도가 관계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그들에게 건네는 나지막한 소리



〈백 번의 위로 사랑합니다〉
이상익 저 | 엠싸이테크 | 15,000원

선부른 위로의 말이 더 큰 상처로 다가온다. 현재는 고통스러워도 미래에는 나이지리니 긍정을 희망하라는 조언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재의 자신을 보게 만들어서 더 큰 괴로움의 나락으로 빠뜨린다. 성경이 우

리에게 위로를 주는 책은 맞지만, 다소 과도하게 성경의 잣대로 소망을 들이밀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압박을 받아 우리 안에서 진리가 진리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

책 〈백 번의 위로 사랑합니다〉의 저자는 선부른 위로를 하려 하지 않는다. “힘들지?”, “많이 힘들지?”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듯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현란한 표현으로 인생을 꾸미려 하지도 않는다. 인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참 힘든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고생 많다”라고 다독여 주듯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두드린다. 그러면서 아주 조금씩, 서서히, 부담되지 않게 다가와 ‘해야 하다(should)’가 아니라 “그러면 어떨까?”라고 나지막하게 말을 건넨다. “지금 당장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알아지는 날이 올 겁니다(틸케)”라는 말을 인용하는 저자의 진심과 진정성이 느껴진다. ‘조금만 견뎌보자’는 말에는 저자의 눈물이 담겨있고, 독자의 눈물도 맺혀서 슬픔이 만나 연합의 힘을 발휘하는 신비로운 심정적(心情的) 작용이 일어난다.

이 책은 신적 상상력의 보고(寶庫)다. 위로의 말을 건네는 인문학적 지식이 녹아 있다.

저자의 전공인 목회(기독교) 상담학의 전문적 지식이 이해하기 쉽게 스며들어있다. 저자가 재해석한 성경과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다.

저자는 때로 아주 조심스럽게 유머를 곁들여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로한다. 곁에 가만히 머물러주면서 밥 한 끼, 차 한 잔을 같이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저자의 따뜻한 손길이 담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엿볼 수도 있다.

이 책은 하나님을 상상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말씀과 지식이 현학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이지 않고 경험적이며 체험적이다. 정말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동인(動人)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책은 단숨에 읽는 책이 아니다. ‘백 번의 위로’가 담긴 이 책을 매일 하나씩, 한 가지 위로의 메시지를 들여다보기를 권한다. 서재에 꽂아두고 매일 묵상집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고통과 마주하는 우리는 혼자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저자 역시 응원자의 마음으로 함께한다. 현인(賢人) 친구가 하나 생길 것이다. 저자가 마음으로 쓴 문자를 마음으로 느끼면서 읽는다면 깊은

이해와 통찰이 다가올 것이다. 우리 안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각자의 위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우울과 좌절에 놓인 사람들에게 건네는 저자의 나지막한 소리는 저자가 직접 경험한 소리, 직접 들은 소리, 직접 적용해본 소리다. 그래서 단순히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마음 깊숙하게 다가와 깊고도 청명한 울림으로 우리와 함께한다. 저자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잘해주실 겁니다”,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은 무책임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가득 담긴 묵직한 울림이다. 진정으로 따뜻한 위로다. 우울과 좌절에 빠져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가득 담긴 책 〈백 번의 위로 사랑합니다〉를 권한다. 문장마다 녹아 있는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기를 소망한다.



이강현 목사
(양지온누리교회)

서랍에서 다시 꺼낸 영화

대가 없는 사랑을 배우다!



〈파이어프루프-사랑의 도전〉
알렉스 캔드릭 감독 | 2008년 개봉
| 드라마

아버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라고 대답한다. 캐럴은 서서히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성장한다. 캐서린도 캐럴의 모습에 감동하고 그 간의 오해를 풀다. 서로를 용서하고 진정한 사랑을 배운다.

캐럴과 캐서린 부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가 없는 사랑을 배운다. 이 영화는 네이버 시리즈 온에서 다시 볼 수 있다. 가격은 대여 1,300원, 구매 5,000원이다.

건강한 공동체 놀이문화

전도하는 보드게임 ‘로스트 트레저’

가장 소중한 보물을 들고 왕궁으로!



‘로스트 트레저’는 보물을 들고 왕궁에 먼저 도착하는 보드게임이다. 상대가 왕궁에 도착하기 전까지 상대의 보물을 맞추기 위해 질문을 주고 받는다. 왕궁에 가장 먼저 도착하거나 상대의 보물을 맞춰서 점수를 많이 획득한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된다. 게임 시나리오, 그림, 진행과정을 모두 성경을 기반으로 제작했다.

보드게임 ‘로스트 트레저’의 핵심은 질문과 경청이다. 기존의 보드게임들이 경쟁이 목표라면 ‘로스트 트레저’는 서로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묻고 경청하면서 관계 맺는 데 초점을 뒀다. 보드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보물을 맞추기 위해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가치관, 신앙 등을 파악한다. 보드게임이 끝난 뒤에는 보물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간증을 나눌 수도 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4가지 버전으로 제작됐다.

‘로스트 트레저’는 도시선교 사역단체 랜드마커 미니스트리에서 개발했다. 랜드마커 미니스트리는 도시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 외국인 유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다. 건강한 공동체 놀이문화를 만들자는 목표를 세우고 ‘랜드마커랩스’라는 보드게임개발회사를 창업했고, ‘로스트 트레저’를 개발했다. 가격은 5만5천 원이다. 랜드마커랩스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입 문의: 010-3121-1604

“자녀들에게 믿음, 비전, 사명을”

차세대,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개최



사진은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현장.

202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1월 18일(목) 차세대사역 본부가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개최했다.

이른 새벽부터 학부모들의 애절한 중보기도가 이어졌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에는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 일가친척과 파워웨이브 교사, 코치, 목회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회’, ‘자녀들의 비전을 위한 기도회’, ‘자녀들의 사명을 위한 기도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 박종길 목사, 이상준 목사가 설교하고, 최혁중 목사, 박성은 목사 등이 기도회를 인도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기도회 참석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

자”라고 권면했다. 박종길 목사는 “자녀들의 삶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하는 부모가 되자”고 축복했다. 이상준 목사는 “부모와 자녀들이 재능, 기질, 은사를 통해 소명을 찾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해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 접수 한창

12월 31일까지 CGNTV 홈페이지

CGNTV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 접수가 한창이다. CGNTV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은 성경암송을 통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획한 퀴즈쇼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총 3,000만 원 상당의 상금 및 상품이 걸려있다.

CGNTV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 참가자는 12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CGNTV 홈페이지와 기독교 OTT ‘풍당’에서 하면 된다. 2022년 1월부터 총 4번의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CGNTV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 퀴즈와 문제는 기독교 OTT ‘풍

당’ 오리지널 콘텐츠 <톨레레게>에서 소개되는 204개 말씀 구절과 해설에서 출제한다. 단순 암송뿐만 아니라 OX 퀴즈, 십자말풀이, 초성퀴즈 등 다채로운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다.

CGNTV에서는 어린이와 초신자들이 그림으로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암송할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 <말랑말랑 톨레레게>도 준비했다. CGNTV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 대회 과정을 담은 콘텐츠 <바이블킹>은 2022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문의: 02-3275-9422

선교재단 ‘사랑의 김치 나눔 축제’

직원 휴일 반납하고 김치 200포기 담가

온누리선교재단이 ‘사랑의 김치 나눔 축제’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15일(월) 온누리선교재단 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서빙고온누리교회 한식당에서 이웃들에게 나눠줄 김치 200포기를 담갔다. 이 뜻깊은 행사에는 서빙고온누리교회 인근 주민 2~3명도 동참했다.

온누리선교재단 사랑의 김치 나눔 축제는 그 준비부터 특별했다.

온누리선교재단 직원들이 용산가죽공원에서 배추, 무, 파, 적작 등 김치 재료 일부를 직접 재배했고, 나머지는 농어촌선교팀에서 소개한 교회에서 구매해서 사용했다.

온누리선교재단 사랑의 김치 나눔 축제에서 담근 김치는 서빙고온누리교회 인근에 사는 주민들과 선교재단 직원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졌다.

갈렙선교학교 수강생 모집

갈렙선교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2022년 1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매주 주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매주 주일 SNS에 올라오는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면 된다.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이다.

문의: 010-7708-7700

온누리 아트비전 정기전

온누리교회 소속 예술인들로 구성된 아트비전에서 정기전을 개최하고 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를 주제로 열리는 아트비전 정기전은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카페, 본관 지하 1층 갤러리에서 진행되고 있다. 온누리 아트비전 소속 성도 21명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느꼈던 감정, 목상, 소망 등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제7회 온누리 선교 컨설팅

11월 23~24일, 경기도 가평 켄싱턴리조트

제7회 온누리 선교 컨설팅이 ‘변화하는 선교상황에 따른 선교사의 허입·훈련·과송’을 주제로 오는 11월 23일과 24일 경기도 가평 켄싱턴리조트에서 개최된다. 이재훈 담임목사,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임훈 장로 등 온누리교회 선교 리더십 50여 명이 참석한다.

제7회 온누리 선교 컨설팅에서는

변진석 목사(GMTC 원장) ‘선교사의 전문성 형성’, 조명순 선교사(한국형선교개발원장) ‘미래선교 동원과 훈련에 대한 제언’, 장장주 선교사(WEC 국제동원담당) ‘미래 선교사 훈련 및 재교육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패널토의와 소그룹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김영선 기자

일대일양육자반 훈련생 모집

12월 1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온라인

일대일양육자반 훈련생을 모집한다. 12월 16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2월 10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없다.

일대일양육자반은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에서 양육자들이 동반자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양육하도록 교육하는 과정이다. ‘예수 그

리스도’, ‘큐티의 이론과 실제’, ‘구원의 확신’, ‘양육 실습-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속성’,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양육실습-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한 삶’, ‘시련을 이기는 삶’, ‘순종하는 삶’ 등을 주제로 16주 동안 강의와 나눔이 이어진다.

문의: 010-9265-1532

“한반도 통일,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통일위원회, 한반도평화연구원 특별공동포럼

통일위원회와 한반도평화연구원이 공동 개최하는 특별공동포럼이 11월 25일(목) 오후 1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막 오른다. ‘미·중 경쟁 시대 한반도의 통일과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다. 온라인(유튜브, Zoom)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이번 특별공동포럼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북핵 문제 해결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한다. 한반도평화연구원 소속 기독교학자들과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한다. ‘미·중 경쟁과 한반도’, ‘한국 교회의 역할은?’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구글폼(QR 참고)에서 하면 된다. 문의: 010-7440-7109



내적치유학교 참가자 모집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주간 온라인

내적치유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2월 5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6만 원이다.

내적치유학교는 하나님 안에서 내면의 상처와 쓴 뿌리를 치유하고, 참된 성품으로 회복되도록 돕는 과정

이다. ‘내적치유와 상처’, ‘역기능 가정의 치유’, ‘관계기술과 수치심의 치유’, ‘관계회복과 감사 나누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 ‘기쁨의 회복’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이기원 목사, 최용준 목사, 정희성 목사, 오은규 목사 등이 강의한다.

문의: 010-2596-1014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김현진 성도(일본어예배부)

일대일제자양육 교제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있다.

“매주 한 번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은 일대일제자양육을 하기 전 내 모습이다. 내가 다녔던 교회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지양해서 간증을 듣거나 기도제목을 나눴던 적도 드물었다.

대학생이 되고 전혀 새로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나는 기존에 다니던 교회와 전혀 다른 신앙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나누고, 기도제목을 공유하고, 신앙적 고민을 이야기했던 경험이 없었기에 그런 교제가 어색했다. 나에게 그런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부담되었다. 게다가 신실한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서 그런 나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예배 외의 모임에는 잘 참여하지 않았다. 점차 교회 공동체와 멀어졌고 외톨이가 되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혼자만의 신앙생활도 괜찮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교만이였다. 점차 내 신앙

혼자만의 신앙생활은 위태롭다

생활이 다른 것들로 대체되었다. 저녁기도와 말씀 묵상은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으로, 새벽 기도 시간은 늦잠으로, 수련회와 전도 활동은 여행으로 바뀌었다. 결국 내 신앙생활은 가끔 생각날 때 하는 기도와 주일예배만 남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주일은 지키고 있다는 자기합리화가 계속되었다.

어느 날 여동생이 자기 생일선물로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고 했다. 주일날 자신과 함께 어떤 곳에 가자는 부탁이었다. 동생과 함께 간 곳이 온누리교회였다. 동생은 나의 신앙생활이 걱정된다고 말했고, 온누리교회 등록과 일대일제자양육 성경공부가 내게 바라는 자신의 생일선물이라고 했다. 그렇게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말씀을 나누었다. 어색했지만 기도제목도 나누었다. 양육자님과 함께 서로의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혼자만의 신앙생활은 참 위태롭다. 세상에 유혹되기 쉽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하지만 믿음의 동반자가 있다면 신앙생활이 안정적이다. 일대일제자양육은 믿음의 사람들과 신앙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박성민, 정희진 선교사(도미니카공화국)

기쁨의 샘 유치원과 소망학교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이 많은 텐데 건강하시고 평안하신지요?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선교사역을 보고드리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기쁨의 샘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모든 학교의 대면수업 시행 조치에 따라 정상적인 유치원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3세, 4세, 5세 반에 어린이 45명이 등록해서 즐겁게 유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유치원 생활을 보면 부모와 가정이 보입니다. 화가 나거나 친구들과 마음이 안 맞을 때 때리고, 깨우는 폭력적인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깨어진 가정에서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보면서 기쁨의 샘 유치원의 역할과 사명의 중요성을 더욱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 많이 품어주면서 더 건강한 인격체로 변화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현지에 아이티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부담이 늘

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티교회와 협력해서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형태의 소망학교를 개설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소망학교가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을 심어주도록 기도해주시고, 소망학교는 교회에서 칠판을 칸막이 삼아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 월세집을 이용하면서 3개 반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또 다른 아이티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회당에 오렌지색 천으로 4개 반을 구분하고, 2명의 교사가 반을 이동하면서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티교회와 학교를 향한 마음을 주시고, 사역 확장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높지만, 여전히 매일 700~8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주님이 맡겨 주신 영혼들과 사역을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와이무슬림’ 수료 간증



/ 우미라 성도(양재온누리교회)

존중하고 배려하는 얼굴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참 많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예배당 예배가 아니면 마음이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익숙해졌다. 게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순예배에 참여하기 힘든 나 같은 성도들에게 온라인 세미나 형식의 모임은 가뭄에 내리는 단비처럼 감사하다.

온라인 예배와 모임, 사역에 익숙해질 즈음 우연히 교회 게시판과 아이스콜 홈페이지에서 ‘와이무슬림 온라인 1기’ 광고를 보았다. 무슬림과 이슬람에 대해 아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신청했다. 사실 무슬림과 이슬람에 대해서 과격한 종교, 기독교와 가장 큰 갈등과 대립을 하는 가까이하기 힘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막연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있었다.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중앙 성전이 보이면 시선을 회피하고,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라고 마음을 닫고 있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온누리교회가 무슬림 전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60여 명 이상의 무슬림이 세례를 받고 주님의 세상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동안 상당히 많

은 무슬림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고, 우리와 함께 상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은혜였다. 앞으로 무슬림들을 만나면 관심을 가지고 대하려고 한다. 대화의 기회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도록 기도하고 싶다.

와이무슬림 강의를 들으면서 무슬림들의 종교적인 역사와 생활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 사는 무슬림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계기였다. 내가 가진 편견으로 무슬림에게 지나치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오해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직 많이 부족해서 무슬림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잘 모른다. 다만 주변에서 무슬림을 만나면 존중하고 배려하는 얼굴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려주고 싶다.

와이무슬림을 이끌어주신 팀장님, 조장님 등 수고하신 모든 손길에 감사를 전한다. 출발은 미약하지만 작은 것들이 모여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음을 믿기에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알콩달콩 부부학교’ 수료 간증



/ 유임근 목사(KOSTA 국제본부)

사랑하는 아내 박진과 함께

알콩달콩 부부학교는 결혼 초부터 정말 듣고 싶었던 양육 과정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미뤘었다. 그러다가 코로나 19 팬데믹 덕분에(?) 온라인 강의가 열렸고 알콩달콩 부부학교 수업을 듣는 내내 정말 기쁘고 행복했다.

알콩달콩부부학교 수업을 듣기 전에 두란노아버지학교 수업을 먼저 들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두란노아버지학교 강의를 신청했다고 했다. 모르고 있었던 일이었기에 놀랐지만, 가정에 대한 열정이 다시 생각났다. 기쁜 마음으로 두란노아버지학교 수업을 들었다. 두란노아버지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행복한 가정에 대한 갈급함이 더 많이 생겼다. 아내와 함께 두란노아버지학교 과정이 끝나는 대로 알콩달콩 부부학교 수업을 듣자고 이야기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비행기가 뜨고 출장이 시작되면 매주 정해진 시간에 배운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알콩달콩 부부학교 강사님들의 강의를 마음 깊이 새겼다. 또 좋은 향기님들을 만나서

참 기쁘고 즐겁게 조모임을 할 수 있었다. 매번 깊은 만남을 하면서 온라인(Zoom) 수업이 아니라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이 아니었거나 온라인으로 열리는 수업이 없었다면 이 좋은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에 감사하며 즐기기로 했다.

내게 알콩달콩 부부학교 수업은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여러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가정에 대한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늘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나가고 싶어하는 아내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생각났다. 평소 아내가 했던 이야기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따라갈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콩달콩 부부학교는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다가왔다. 지금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멋진 부부가 되고 싶다. 사랑하는 아내 박진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려가고 싶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을 가진 아내와 함께 발맞춰 걸어가며 주님을 뵈는 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서기를 바란다.

장로칼럼

남양주온누리교회의 부흥과 도전



임현태 장로
(남양주온누리교회)

2004년 11월 7일 경기 동부 지역 복음화를 꿈꾸면서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창립됐다. 남양주온누리교회 창립을 위한 기도모임부터 시작하면 18년이 지났다.

교회가 편하고 좋아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남양주온누리

교회의 시설은 썩 좋은 편이 아니다. 열악한 시설에서 묵묵하게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겨주시는 성도님들께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남양주온누리교회가 지난 18년을 교회답게 보냈냐는 질문 앞에서 돌아보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남양주온누리교회 사정을 아는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것 같다. “몇 년째 성도 수가 감소상태인데요?”

십여 년째 남양주온누리교회 성도 수가 1천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남양주온누리교회가 질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장을 이뤘다고 자부한다.

남양주온누리교회는 1개 다락방당이 한 명의 선교사와 결연을 맺고 동역을 해오고 있다. 한 성도의 가족인 선교사를 포함해서 남양주온누리교회는 11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다. 간간하게 따져봐도 참 아름다운 동역을 하고 있다. 올해 온라인 아웃리치에서는 각 다락방이 3~5회씩 모임을 했는데 총 1,600여 명이 참석했다. 그 열매도 풍성했다. 선교 헌금이 5천9백만 원이 모였다. 선교지에 신학교를 세우는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도 하고, 자녀가 텅 기열 후유증으로 병상에서 사투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도 했다. 한 성도님은 꼭 선교사님들을 돕고 싶으면서 적금을 깨서 5백여 만 원을 헌금하시기도 했다. 지난 18년 동안

남양주온누리교회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하고 싶다.

또 다른 선교 열매로 남양주온누리교회를 거쳐 간 두 명의 이주민을 소개하고 싶다. 이주민 근로자로 와서 남양주온누리교회에서 훈련받은 인도인 해리는 복음의 불모지인 북인도 고향에서 가정교회 2개를 세우고 섬기고 있다. 매주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어찌나 풍성한지 하루빨리 장로를 은퇴하고 인도에 가서 해리를 돕고 싶은 마음뿐이다.

또 한 명은 네팔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는 벤자민 목사님이다. 남양주온누리교회 외국인 예배에서 힌디어와 네팔어 예배를 섬겨주셨었다. 네팔로 돌아간 벤자민 목사님은 교회 개척을 꿈꾸는 30여명의 청년들을 양육하고 있다. 선교에 열정이 있는 몇 명의 성도가 벤자민 목사님 제자의 교회를 후원한 적이 있었다. 산간 외지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였다. 얼마 전 그 제자의 소식을 들었는데 지역에 교회 4개를 더 개척해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했다. 얼마 전에 구리시 사회복지관에서 공문이 한 장 왔다. 구리시 독거노인 5천 명 중에서 200여 명에게 매주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는데 남양주온누리교회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길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한국에서 18살이면 투표권이 생긴다. 이제는 성인이 되었다는 소리다. 남양주온누리교회도 한층 더 성숙해질 것이다. 국제부와 차세대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양주온누리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은 다산 신도시의 새로운 예배당에서 맞이할 것 같다.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축복처럼 생명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 지역과 열방을 향해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기도와 열정, 협력, 소통, 창의성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기를 기도한다.

권사칼럼

모든 것이 은혜였다!



용명순 권사
(관악금천공동체)

얼마 전 온누리교회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에게 겨울 옷을 후원했다. 따뜻한 패딩과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운동화를 선물했다. 이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나는 무릎선교팀 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항상 선교지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 선교지에 관심이 많다.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반낮없이 눈물로 기도했다. 기도하던 중에 여성사역 연합기도회 팀장, 총무 단체채팅방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에게 선물할 패딩을 구매해야 한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패딩을 구매하고 포장해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에게 보내야 하는데 그 작업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웬지 모르게 ‘무릎선교팀이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과 내가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나서서 사람이 있는지 기다려봤는데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나섰다.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남대문이나 동대문시장에 가서 도매로 패딩을 구입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문제가 생겼다. 패딩을 사야 하는데 상의 크기가 아니라 신발 크기가 도착했다. 신발 크기만 보고 내가 알아서 패딩을 구매해야 했다. 이렇게 난감할 수가 있나. 게다가 겨울 패딩은 아직 시장에 나오지도 않았고, 도매라도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겁 없이 덤벼드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주주세요. 장사하는 사장님들도 손해

보지 않고, 후원하는 교회도 부담되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받는 분들도 좋아하실 수 있도록 질 좋은 옷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밤낮으로 드렸다.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에게 의류를 후원하는 일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장사를 하는 사장님들을 연결해줄 수 있는지 손이 닿는 곳마다 부탁했다. 가까스로 신발, 패딩, 양말 장사를 하는 분들과 연결되었다. 기도하며 연결된 분들은 하나같이 좋은 분들이었다. 우리가 산 물품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있는 여수까지 보내야 하는데 “좋은 일 하시는 거니까 택배비는 안 받을게요”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 공장 사정에 맞지 않는 일인데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도움을 주신 분도 있었다. 큰 도움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 크리스천인 나는 얼마나 욕심을 내고 있었는지 돌아보았다. 하나님께서 사장님들의 사업장에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사장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했다.

추워지기 전에 전달되기를 기도했는데 딱 알맞게 도착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아프가니스탄 형제자매들을 생각했더니 기분이 좋다. 그들이 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다. 여여곡절이 정말 많았는데 마치고 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 지나고 보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또한 권사님, 장로님께 귀한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해야 할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신 것 같다. 이번 사역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은 것들을 놓고 더 열심히 기도할 것이다.

신앙에세이



유진아 목사
(S브릿지공동체, 사회선교본부 생명과 환경팀)

10여 년 전 생태신학에 관한 신학대학원 수업 중에 교수님에게 들었던 말이 있다. “아나바다”이다. 이 말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의 준말이다. 물자 절약과 자원 재활용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그 교수님은 ‘아나바다’라는 말이 더이상 그 본래의 뜻이 아니라 “아껴 쓰지 않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가 되어 버렸다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맞는 지적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무지하고, 무차별적인 착취와 훼손으로 인해 날마다 신음하고 있다.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이미 맞이한 환경 파괴와 생태계의 위기는 이제 인류 자체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 미래의 최대 과제로 드러났다. 환경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모두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와 지침을 주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흘려들었다.

요즘도 왜 교회가 환경 문제를 다루는지를 궁금해하는 성도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환경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임은 틀림없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환경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물어보신다. 그 상황을 경험할 때마다 목회자로서 적지 않은 책임을 실감하게 된다.

환경 문제는 분명히 신앙의 문제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전하고 지키는 것

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다.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선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든다.

그래도 다행이다. 뒤늦게라도 우리가 사는 지구의 멸망 위기 이야기가 거론되면서 사람들이 서서히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기독교인들은 인류의 안위와 안녕이 걸린 문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기독교인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생명체를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로 하여금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명하신 뜻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는 인간중심적 성서 해석과 사고를 인지하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

감사하게도 이재훈 담임목사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복음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온전한 회복은 인간뿐

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온누리교회도 인간중심적인 구원론에서 우주적 구원론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야 할 시기이다.

이제 환경 문제를 바라볼 때 단순히 환경 보호나 환경 보전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회복과 총체적 구원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러한 총체적 구원을 포함해야 비로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온전한 뜻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롬 8:19~22).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율법의 종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길과 진리를 갈망하게 하고, 참된 진리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생명줄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약속을 붙잡게 하는 기능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빛나게 하고,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잘 요약한 존 스토틀 목사님의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쳐서 상하게 해야 비로소 우리는 상처를 싸매 복음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다. 율법이 우리를 체포하여 옥에 가두어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해방 시켜 주실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된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죽여야 비로소 우리는 칭의와 생명을 얻고자 그리스도를 부르게 된다. 율법이 우리를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 몰아가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 율법이 우리를 지옥에까지 낮추어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천국으로 올려줄 복음으로 돌아서게 된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서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만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면 그 백성은 약속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자신이 했다고 우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 앞에서 그들이 절망하고, 율법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행위만 요구합니다. 완전한 행위를 요구합니다. 일체의 타협이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믿음만 요구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선한 행위일지라도 그 안에 죄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오직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오직 행위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 요구합니다.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을 스스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믿음으로

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합니다. 의롭게 되기 위한 행실이 아니라 의롭게 된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전로역정〉 저자 존 번연은 이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율법은 달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손도 발도 주지 않는다. 복음은 훨씬 더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그것은 우리에게 날아가라고 하며 날개를 준다.”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허구입니다. 거짓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믿음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때를 위하여 역사하셨고, 그것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세 가지 변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26~27절).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된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에 속한 죄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회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고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그분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고, 그분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변화를 이

루셨습니다. 둘째,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28절).

율법이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죄 아래 가둠으로써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복음도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함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존재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회적 차별을 없애려는 수많은 법과 제도가 존재했지만, 차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이고, 율법 아래 죄 아래 갇힌 자였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백만이 공동체와 사회에서 차별이 없게 만듭니다. 셋째,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29절).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연결될 뿐만 아니라 신약과 내가 연결됩니다. 성경의 역사가 살아있는 문서가 되고, 나의 믿음이 역사적인 계승을 이어 갑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율법이 폐해졌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나타났습니다. 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요, 그 약속의 권위, 가치, 능력을 부여받은 상속자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 있게 하고,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복음을 확신하고 더 깊이 체험하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교회의 사회적 책임



이영근 장로
(서빙고
농어촌선교회)

대대로 지켜온 논밭을 팔고, 애지중지하던 소까지 팔아 도시로 유학을 보내기 시작했다. 공부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농어촌 젊은이들이 하나둘 도시로 공부하러, 새 일자리를 찾으러 떠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농어촌에는 노인들만 남아있다. 청년들 목소리와 아이들 울음소리를 더 이상 들 수 없게 되었다. 유일하게 들리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젊은 목사님 가정과 부모 없이 할

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어렵게 자라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더 이상 신생아 출산이 보이지 않으면서 농어촌 인구 감소문제가 아주 심각해졌다. 주민 없는 마을과 성도 없는 교회가 되어서 추억 속으로 사라질까 정말 두렵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 마지막까지 한 영혼 살리고자 헌신을 다해서 농어촌교회를 섬기고 있는 농어촌선교팀이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선교팀은 하나님께서 농어촌선교를 위해서 팀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농어촌교회를 찾아가고 있다.

농어촌선교팀 사역은 크게 일곱 가지다.

첫째, 성도 감소로 존폐위기에 놓인 미자립교회에 물질지원 및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CGNTV와 기독교 OTT ‘풍당’ 등 온누리교회의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협력하고 있다.

둘째, 비전현금으로 목회자 자녀 대학 장학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학기당 50만 원씩 4학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갑자기 발생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목회자 가족 의료비 지원 사업을 나눔 장터와 함께 하고 있다.

넷째, 시설이 노후된 교회와 사택,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 주택 등을 고쳐주고 있다. 자체 구매부터 재능기부까지 팀원들이 하나 되어 교회 공사(전기, 보일러, 페인트, 지붕 보수, 도배, 장판, 내부 단열공사 등)를 하고 있다.

다섯째,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들과 지역 학생들을 위한 초청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학생들과 함께 믿지 않는 부모들도 동참하는 기회를 마련해서 서울 구경과 문화탐방, 청소년예배와 성인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신앙을 전수하고, 믿지 않는 부모들을 전도하고 있다.

여섯째, 농어촌 목회자 부부 초청행사를 하고 있다. 서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목회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교회 목사님 부부가 목회의 부담을 내려놓

고 피로한 영과 육을 충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곱째, 농산물 판매사역을 하고 있다. 함양 유행마늘과 고창 고춧가루, 남원 절암배추, 쌀 등을 소개하고 판매를 돕고 있다. 2022년도에는 새로운 사역도 계획하고 있다. 어촌양식장과 농촌 비닐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 해외 근로자들에게 지역 교회와 협력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다.

농어촌선교는 멈출 수가 없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곳에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 주실 것을 믿는다. 농어촌선교팀이 선봉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농어촌 미자립교회들과 협력할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쉬지 않고, 어디든 찾아가는 농어촌선교팀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를 농어촌 복음화를 위해 흘려보낼 것이다. 이 뜻깊은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문의: 02-3215-3434, 3436

농어촌선교는 멈출 수가 없다!

CGNTV



태초부터 아멘까지

바이블킹

BIBLE KING

<톨레레게>와 함께 하루에 한 줄 암송하고,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에 지금 도전하세요!

접수기간	참가대상	대회미션						
11월 1일 ~ 12월 31일	크리스천 누구나	톨레레게 암송구절 204개 & 해설에서 출제되는 퀴즈 맞추기						
시상내역	신청방법							
총 3천만 원 상당의 상금 및 상품	접수기간에 바이블킹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후 신청							
* 바이블킹 상금은 특별현금으로 진행됩니다	* '풍당' 앱에서 신청배너 클릭 또는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진행절차								
접수 (온라인)	»	1차 예선 (온라인)	»	2차 예선 (온라인)	»	본선 (오프라인)	»	결선 (오프라인)
필수 시청 콘텐츠								
톨레레게  친절한 설명과 반복 연습으로 일상 속에서 말씀을 만나보세요			말랑말랑 톨레레게  그림으로 쉽고 재미있게 남녀노소 누구나 암송을 할 수 있습니다			톨레레게 게임  게임을 하다보니 어느새 암송? 톨레레게 204구절 성경 말씀을 즐겁게 익혀보세요		



필수 시청 콘텐츠
'풍당'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의 02-3275-9422